

검증? 네거티브?...민주 경선구도 출렁이자 거칠어진 '입'

발언 수위 갈수록 높아져

이재명·이낙연 전면전 치달아

후발주자들까지 전선 확대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자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의혹'으로 시작된 주자들의 거친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예상과는 달리 최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각 진영의 견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각종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경쟁은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이른바 율티머스 의혹, 혜경궁 김씨 등 서로의 민감한 이슈까지 거론하며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지난 2017년 경선과 비교해보면 공방이 워낙 수위까지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흥수 때 강물이 불어났듯 순식간에

일계점까지 차오를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지도부나 선관위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느냐. 박정희 찬양하던 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후위 주자들도 검증 공세에 팔을 걷어붙였다. '반명연대'에 이은 '반낙연대'라는 말까지 거론된다. 후발주자들의 상호 견제까지 이어지면서 전선이 점차 다층화하는 양상이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뺑뺑 당 대표'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박용진 후보는 "불안한 후보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이라며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박용진 후보는 정세균 후보의 '민주당 저동론'에 대해 "구시대적 혈통론"이라며 협공을 가했다.

이낙연 후보 측도 총공세 모드다. 현직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국정원 댓글 공작을연상시킨다. 선거개입 이전에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비열한 정치 공작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신용등급 영향을 들어 국제상황을 주장한 흥남기 부총리에 대해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부총리 조동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조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흥 부총리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를 '강아지' 운운하는 인신공격으로 조롱해서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박관현 열사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휘어진 팔' 사진 공개...군미필 공격 정면 대응

"장애인들이 느끼는 서글픔"

김두관 "비열한 마타도어 그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는 18일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군 미필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밤 소년공 시절 부상으로 비틀어진 자신의 팔 사진을 공개한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군 미필 얘기는 참 슬픈 이야기여서 말하고 싶지 않는데 굳이 물어보니 말씀드립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서면 팔이 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고 불량해 보인다"고 말한 뒤 직접 자세를 취해 보이면서 "팔이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서러움 같은 것"이라면서 "우리 가족 중에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안 갈 사람은 없다. 저만 안 갔고 다 다녀왔다. 제 아들들도 공군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경선 남성 후보 5명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뺀 4명만 넣은 사진에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이란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어 인터넷상에 돌렸다. 이낙연 후보는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한국 지원병인 카투사로 복무했고, 정세균, 박용진 후보는 각각 경북 안동과 부산 해안 부대에서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소년공 시절 부상으로 비틀어진 자신의 왼팔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군필 원팀' 포스터를 올리며 "미필 소리가 낫다. 차라리 저를 빼달라. 비열한 마타도어에 동침하기 싫다. 누구도 장애를 갖고 비하 받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 후보에 감사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차마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마음만 아팠다"며 "장애의 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준 김두관 후보 말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도,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러움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며 "이 그림을 보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프레스에 눌러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 팔 셔츠만 입는 걸 보며 어머니는 속울음을 삼켰다"며 "휘어버린 팔꿈치를 쓰다듬던 어머니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만 울었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 서른이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짧은 팔 셔츠를 입게 됐다"며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 글을 보니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을 큰형님이 나서 말려주는 것 같은 푸근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후원금 모집 8일만인 18일 정도 모금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금 한도액(25억6545만원)의 약 80%에 해당한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은 95.7%를 차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진보·호남까지 아우른 외연 확장 포석

광주 찾아 '5·18정신' 메시지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를 찾은 배경에는 중도를 넘어 진보와 호남 민심까지 아우르려는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5·18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5·18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방문, 5·18 관계자와의 면담 등 대부분의 일정을 '5·18 행보'로 할애하면서 '5·18 민심 깨닫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윤 전 총장의 이날 메시지의 대부분도 '5·18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그는 "80년 5월 당시 광주가 흘린 피와 그동안 맺힌 광주의 한(恨)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5·18 정신이 향후 광주·전남의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

신의 헌법 전문 삽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미안마 연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가 벌어지면 5·18 정신에 입각해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이처럼 '5·18 정신'을 앞세우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만큼 이번 '5·18 행보'로 탈 보수를 통한 중도세력 및 호남 민심을 끌어안아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전략적 측면에서 존제감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번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 뒤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형수 출신인 김종배 전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 "7월 중 광주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광주 방문 계획을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